

2022 WINTER VOL. 16

POSTING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식지



CONTENTS

03

공공보건의료 Alive I

조승연 회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06

공공보건의료 Alive II

정은영 부단장(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08

보건사업 Brief

공공병원 의료인력 공급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10

지원단 주요일정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발행일 2022. 12. 발행호 Vol.16 발행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편집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행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ippi.or.kr> 전화 032-580-6391

디자인·제작 DESIGN 편집

※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소식지 <POSTING>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INTERVIEW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공공보건의료
유관기관 알리기

②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를 소개해주세요.

❶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처음 전국지방공사의료원 연합회로 1987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의료원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이하 ‘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초기 연합회는 지방의료원 간 정보 교류 등의 창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연합회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동 관심 사항을 대변하고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개선, 임직원의 자질 향상 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의료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화 지원을 위한 공동 구매사업, 지방의료원의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지방의료원 정보화사업 지원 및 통합유지보수,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직능별 협의회 활성화, 지방의료원 노사교섭 업무 지원, 이외에도 회원 병원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2곳의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합회가 전체 의료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③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파견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나요?

❶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대응 관련하여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판단 아래 마련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상교수제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10개 국립대병원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7월부터 의사인력 배치를 시작하고, 2023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트랙으로 채용되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해당 정책 제안자들은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국립대병원의 정년보장 트랙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고, 두 번째는 임용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3인 1조로 구성하여 1명은 본원에 근무하고 2명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는 순환 근무제가 세 번째 원칙입니다. 국립대병원에 있을 때는 국립대병원의 취업규칙에 맞춰 근무하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파견 나오면 해당 공공병원의 취업규칙에 맞추어 근무하게 됩니다.

위 원칙은 안정된 신분과 처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교육, 연구, 공공의료 사업을 담당하여 지역의 공공의료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 가지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표한 인원만큼 충원이 되지 않다 보니 3인 1조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고, 정년보장 트랙으로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의 특성상 모집공고에 시범사업 기간 동안 채용하다는 내용을 포함하다 보니, 지원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의사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 진행 중인 3차 공고에는 정년보장 트랙을 보장하는 것으로 명기하여 모집 진행 중입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일부 사업입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 여러 기관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추진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②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 소속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은 현재 공공임상교수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①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공공임상교수로 마취통증의학과 2명, 소화기내과 2명, 신장내과 2명 총 6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의 경우 국립대병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파견을 보내줘야 하는데 현재 요청 인력 중 한 명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❸ 타 시도 지방의료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운영 상황은 어떠한가요?

❶ 경기도 이천의료원이 가장 많이 채용된 지방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의 경우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이전부터 분당서울대병원 인력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이전부터 심뇌혈관센터의 신경과 부분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사를 파견하여 근무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인력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천적십자병원이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공공임상교수를 파견 받아 응급실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❹ 공공임상교수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 전국 지방의료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❺ 공공임상교수를 법제화하여 정규인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는 「임상교수요원(법 제16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임상교수의 경우 「임상교수요원」 규정을 활용하고, 동법 시행령에 「공공임상교수」의 직무와 보수에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개

정이 필요한데, 현재 초안을 완성한 상태이며, 교육부에서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각 국립대병원에 정원 및 예산을 마련할 근거가 생기고, 그래야 공공임상교수 모집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임상교수제를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각 기관별 근무 조건이 다양합니다. 어떤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사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인천 같은 대도시 같은 지역은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근무 조건 때문에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의 근무 조건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공병원의 표준 급여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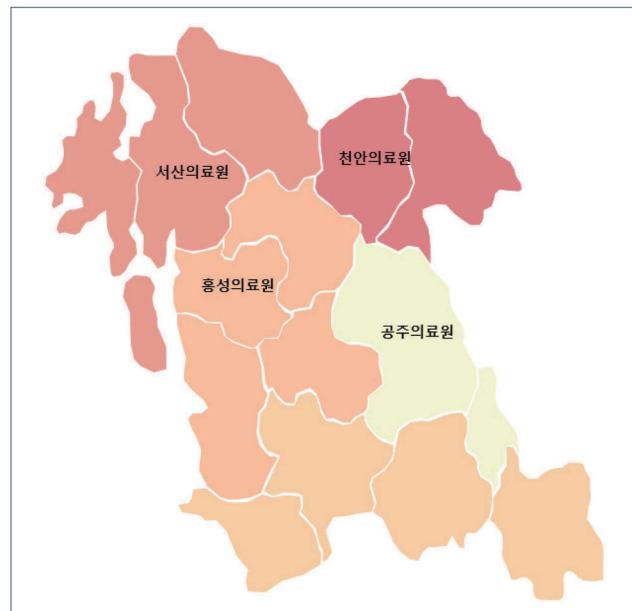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수급체계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

글 정은영 부단장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충청남도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배경

충청남도에는 4개의 지방의료원(천안, 공주, 서산, 홍성)이 있고, 전국 여타의 지방의료원들과 동일하게 의사인력 부족, 필수진료 역량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타 시도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충청남도청이 도내 지방의료원의 정상 운영, 역량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충청남도는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고심하였고, 중앙정부에서 준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로는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울 수 없을 거라는 예상하였다. 그래서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하자마자 충청남도청은 시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의사인력 수급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작년 겨울 내내 이 연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충청남도형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충청남도형 공공임상교수제 운영 현황 및 추진 성과

충청남도형 공공임상교수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에 준하는 조건으로 지방의료원 파견 의사의 인건비를 도비 100%로 지원해주는 도 자체 사업이다. 충청남도 내에는 국립대학병원이 부재한 반면,

2개의 사립대학병원(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존재하고 있어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2개의 사립대학병원과의 교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충청남도는 적극적으로 충청남도형 공공임상교수제를 '22년 4월 정기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고, '22년 11월에 충청남도-사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3년 3월부터 2개의 사립대학병원 소속 전문의 6명이 충청남도 공공임상교수요원으로 지방의료원에 파견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후속 연구 시행 예정

'22년 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연구 결과로 도출한 정책 대안에는 충청남도형 공공임상교수제 외에 의사인력의 지방의료원 근무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충청남도는 이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 지방의료원 봉직의의 자기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교육비와 임상연구비를 지원하고, 성과관리체계 개선 노력으로 공공보건의료 활동을 반영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개선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채용률은 기대 이하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충청남도형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 확장되어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으로 의사 인력을 유입하여 그들이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대안 제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의사인력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채용 담당자, 재직 전문의, 퇴직 전문의들을 1:1로 만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지역사회, 조직, 개인 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실태래처럼 여러 겹 얹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수급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의사인력의 세대별 근무지 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의과대학생, 전공의, 공보의, 개원의 및 봉직의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통합적인 결과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함께 해결해야 할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충청남도 맞춤형 의사인력 수급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23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공병원 의료인력 공급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글 나백주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들어가는 말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시기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

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전력을 다해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은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보건의료노조에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파업을 선언하였고 이후 극적으로 타결은 되었는데 이를 통해 공공병원 인력의 희생이 높았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의사인력도 공공병원을 그만두는 일도 많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시기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평소 공공병원 의료인력이 가지는 문제가 제대로 진단되고 충분히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에 공공병원 의료인력 공급 문제점에 대해 파악해보고 그 정책 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공공병원 의료인력 현황

공공병원 의료인력의 공급 현황 문제를 코로나19 시기와 평시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측면의 문제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코로나19 시기 의료인력의 문제는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burn out(소진)이 심했다는 것과 중환자 진료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김형숙, 강경화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연구로 최근 수행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인권실태 조사”에서 병원 간호사들이 겪은 공통적인 문제는 업무시간 이후에도 남은 업무 처리에 시간을 써야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방호복을 입은 채로 연속 근무한 시간이 평균 4시간 이상이었으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평균 13시간 정도 근무하고 아파도 출근해야 했던 경험이 75% 정도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은 단시일 내에 병원 전체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급성기환자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 및 중환자 간호 어려움이 커으며 임금수준이 높은 파견직 간호사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직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호소가 있었다¹⁾. 가장 핵심

1) 김형숙, 강경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10.28

2) 이홍훈, 서창진.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 분석 및 코로나 대응 제도에서 참고할 운영 개선 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1). 2022 p.695~703

적인 것은 평소 거동불능 환자까지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인력수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종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한 인력배치 및 동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평상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문제는 이홍훈 등이 2022년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동급의 민간병원에 비해 전문의 인력은 67%이고 간호사 인력은 89%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②. 물론 이러한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병원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살펴보아도 인구 대비 의료인력 숫자 측면도 그렇고 그들의 처우 등 전반적인 열악함 및 지역간 직종간 편중이 심한 편이어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정책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 상황에 끌려가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병원보다 더 열악한 공공병원 의료인력 문제를 결과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 의료인력 공급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병원 의료인력 공급 현황에 따른 문제를 야기하는 정책상 문제점은 공공병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입체적인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공공병원 의료인력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 그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인력 전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나아가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투입을 비용으로 보며 당기순손실 적자로 바라보는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 즉, 공공병원 의료인력의 가장 큰 문제는 양과 질이 충분하지 못하며 전체 국가 차원의 의료인력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 비전(Vision)이 부재하다는 것이 공급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공공보건의료 핵심으로 두지 않은 철학적 문제가 있다. 공공병원 의료인력은 단순히 다른 민간병원처럼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진료 제공 외 지역사회 공공의료 요구 이해 속에서 공공의료 정책 수행의 관점과 역량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공의료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정책 연구 역량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의 역량 향상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안정적인 기술지원 조직(예.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및 재단) 및 공공보건대학원 등이 있어 연구지원 및 석사급 이상 교육훈련 체계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이러한 진료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 역량을 토대로 의료 관련 학생들의 교육훈련에도 롤 모델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오는 말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3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바로 이어 나온 4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미 법적 근거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이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전국화했던 것처럼 국가는 공공병원 의료인력 충원과 처우개선, 교육훈련 및 연구사업 관련하여 공공병원 및 지자체가 선도적 수행을 할 수 있게 지침과 관련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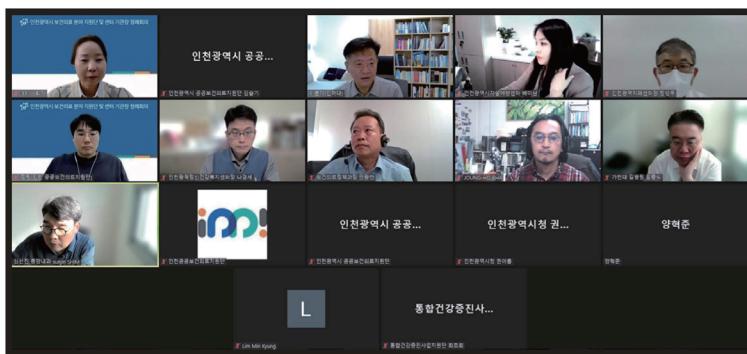
국립중앙의료원-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및 재단 공동 심포지엄 개최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 16개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및 재단은 ‘책임의료기관을 통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보장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역량 및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10:30~12:00
- 장소 : The-K 호텔 경주 가야금D홀

인천광역시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 및 센터 기관장 정례회의 개최



인천시와 인천시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 및 센터 연계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기관장이 모여 2022년 1~3분기 연계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2022 인천 공공보건의료 포럼, 섬 지역 공동사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14:00 ~ 15:00
- 방법: 온라인(Zoom)

인천광역시 군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각 군구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방법, 통계활용법 등의 온라인 학습 정보(이러닝 콘텐츠)를 인천광역시 보건의료e배움터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군구에서 작성한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지원단의 군구 현황진단 내부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현황분석 검토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 2022년 10월 17일 ~ 2023년 4월 30일, 2022년 11월 ~ 12월
- 장소 : 인천시 군구 보건소

2022년 인천 책임의료기관 심포지엄 공동개최



공공보건의료 지역사회 연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을 주제로 2023년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방향과 공공정책수가 현황 및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인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2년 11월 3일(목) 14:00 ~ 16:30
- 장소 : 송도 컨벤시아 회의실 116~118호(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

2022년 제4차 전국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및 재단 연석회의 참석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주관한 2022년 제4차 연석회의에서는 ‘지방시대 공공의료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공공의료 현황 및 과제,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이후 시도의 정책역량강화 성과를 공유한 둘째 날에는 정원 부단장이 인천시의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 일시: 2022년 12월 8일(목) 13:30 ~ 9일(금) 12:00
- 장소: 호텔인터불고 대구(온라인 병행)

2022 인천 공공보건의료 포럼 개최



인천시와 인천의 15개 보건의료 지원조직이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인천의 보건의료 지원조직은 2015년부터 매년 ‘인천 공공보건의료 포럼’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민선 8기 출범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맞물려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의 도약’을 주제로 주제발표, 패널토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시의회, 인천시, 공공·책임의료기관, 보건소, 유관기관 등에서 약 13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 15:00 ~ 17:30
- 장소: 송도센트럴파크호텔 2층 에메랄드홀

2022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간담회 개최



인천 권역책임의료기관(가천대 길병원)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2023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14:00 ~ 16:00
- 장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성과물 발간



「인천광역시 건강격차 Fact Sheet I. 주요통계」, 「인천광역시 건강격차 Fact Sheet II. 통계표」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Part2.」를 발간하였습니다. 각 성과물의 전문은 지원단 홈페이지(<http://www.ipp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사다난 했던 2022년!
특히,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던
한 해 속에서 관련 소식을 담은
저희 지원단 소식지에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